



# 2011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률 1% 하회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7월 29일 미 상무부는 2011년 2/4분기 미국 GDP가 1.3% 성장(계절조정 전기대비 연률)에 머물렀다고 발표했으며, 2011년 상반기 GDP 성장률도 1%에 미치지 못하는 0.8%로 나타나는 등 경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음.
  - 2011년 2/4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인 1.8%를 하회하는 1.3%로 나타났으며, 1/4분기 GDP 성장률도 1.9%에서 0.4%로 수정되면서 2011년 상반기 GDP는 1%에도 못 미치는 0.8% 성장에 그침.
  - 2010년 4/4분기 GDP 성장률도 3.1%에서 2.3%로 수정되면서 유가상승이나 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이 없었던 2010년 말부터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에 따라 최근 경기회복세 둔화가 일시적 요인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.
  - 한편, 8월 1일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(ISM) 7월 제조업 지수가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50.9로 집계되고, 8월 2일 발표된 6월 소비지출도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감소(-0.2%)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부각됨.
- 미 상무부는 2011년 2/4분기 GDP 추정치와 함께 2003년 이후의 GDP 수정치도 발표하였는데, 이러한 수정치를 통해 보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보임.
  - 2007년 4/4분기~2009년 2/4분기의 GDP 성장률이 -4.1%에서 -5.1%로 수정되었으며, 특히 2009년 GDP 성장률이 -2.6%에서 -3.5%로 수정되는 등 금융위기 당시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남.
  - 분기별로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 직후인 2008년 4/4분기 GDP 성장률이 -8.9%로 나타났으며, 이는 1958년 이후 가장 낮았던 분기성장률임.

(NY Times 등, 7/30)